

# 법무부 '검사 대방출' 곧 실현될 듯

### 실·국·본부장 복수직제 추진 간부급 '非검사화' 본격화 86명 중 상당수 물러날 듯 檢, '돌아온 검사들' 숙제

법무부의 검사 '대방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검찰은 쏟아져 나올 검사 인사 배치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제강점기 예상돼 온 법무부 검사 인력 감축은 박상기(66) 신임 장관 취임과 거의 동시에 구체화됐다.

지난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토록 돼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공무원, 외부 인사 등도 법무부 실·국·본부장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내 검사 정원을 자연스럽게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박 장관이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방안이다.

법무부 장·차관 이하 본부(운영지원과 제외)는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검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교정본부와, 본부장(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만 겸사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실·국·본부장뿐만 아니라 과장까지도 검사가 독식을 하다가 피하고 있다.

특히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은 실·국·본부·과장 자리를 모조리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6개 과 가운데 3개(범죄예방기획과·법질서선진화과·보호법제과) 과장이 검사이고, 검찰관·대변인·정책기획단장·법무심의관·감찰담당관 역시 검사다.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위해 아르메니아 방문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해외 자매우호지역 확대를 위해 아르메니아를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와 방문단은 20일(현지시각)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IT 학교 1위로 선정된 TUMO창조기술센터를 방문해 3D 모델링 과정에 관한 시연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 말고도 검사나 일반직 공무원 등도 보임할 수 있는 곳까지 검사가 맡고 있다보니 나온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법무부 신뢰를 깎아먹은 주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검사 선·후배 사이로 오묘조밀 엮인 현실이 이를 가로 막아왔다는 것이다.

박 장관 체제에서 추진될 법무부의 '검사 군살 빼기'는 일단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권국 간부를 중심으로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출입국 행정 전문가, 인권변호사, 관련 분야 교수 등이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후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의 중심인 기획조정실과 법무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각 부서 간부의 '비(非)검사화'가 현실화되면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86명(2017년 7월 기준) 중 상당수는 쏟아져나올 수 밖에 없고, 이들을 다시 재배치해야 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숙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법무부 근무 검사 중 과장 이하는 정식 발령과 각 검찰청 소속인 과장이 섞여 있지만, 과장부터는 모두 법무부로 정식 발령을 받은 경우다.

특히 실·국·본부·과장 같은 경우 검사장 및 부·차장검사급인만큼 인사가 간

단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라며 "비교적 쉬운 자리부터 민간전문가에 맡기겠다는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과장급이하 검사들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실국장급 상당수는 검찰 수뇌부를 형성하는 기수들이라 이번 검찰인사에서 고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은 "법무부 간부의 비검사화가 실현되면 그 아래도 이휘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대부분의 자리는 행정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다. 현재 86명 중 절반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동부권 6개 시군 현안 공유·발전방안 논의

전북도 김일제 행정부지사는 21일 동부권 지역 도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기획관 및 동부권 지역의원 5명이 참여하여 동부권 6개시군 현안공유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동부권 지역 도의원은 남원 강용구 의원,

임실 환완수 의원, 진안 김현철 의원, 장수 양성빈 의원, 순창 최영일 의원이다.

최근 도 시군이 공동 추진중인 제2차 동부권발전계획 수립용역 내용과 특별회계 운영방안이 검토됐다.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한 총 59건 발굴사업(국책사업 13건, 시군 전략사업 16건, 동부권 연계사업 30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추진 시, 개별 시군 또는 도 사업부서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 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6개 시군에 매년 균등한 예산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실태 및 성과 달성 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 도 행정부지사·동부권 도의원 간담회 수립용역·특별회계 운영방안 검토

전북도 김일제 행정부지사는 "임실·순창·남원의 윗산업 활성화 사업처럼 시군간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위원회 등 중앙부처 공모를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부권 시군이 힘을 합쳐서 대형 국책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부권 지역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자유한국당, 5행시 공모... 80% '쓴소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7·3 전당대회 개최 이벤트로 진행했던 5행시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각종 조롱성 댓글로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기도 했다.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개최됐던 5행시 이벤트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전 참여 댓글 수는 총 2만2558건이었으며 이 중 80% 이상이 비판적 댓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응원과 격려도 있었지만 80% 이상이 빠이픈 질책과 쓴소리였다"며 "그러나 이런 질책과 비난도 한국당을 향한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알기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 눈높이를 당을 혁신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며 전진하고 비판의 쓴소리는 당선자 선정 심사에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작은 총 5개를 선정했으며 '자'기'법'그'릇'을 '유'난'히'챙'기'니'한'법'도'국'민'편'인'적'이'없'음'이'당'연'하지'않'은'가', '자'랑'스'럽'다'고'생'각'하'고'계'시'진'않'겠'조' '유'치'한'변'명'때'윈'더'더'욱'하'시'지'마'시'구'요' '한'사'람'한'사'람'의'의'견'을'중'히'여'기'서'여' '국'민'이'원'하'는'땀'뻘'한'보'수'정'당'을'만'들'어'주'세'요' '당'당'한'그'날'이'올'때'까'지'민'심'이'어'떠'란'지'귀'기'올'어'기'습'깊'이'새'겨'주'세'요' 등이 뽑혔다.

아울러 우수상 15명, 장려상은 30명을 선정했으며 백엔드 블루투스 이어폰, 터치펜·블펜·USB 메모리, 핸디형 무선선종기 등을 경품으로 수여한다. /뉴시스

### 박주선 "군산조선소 대책, 전북도민에 대못 박아"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대책과 관련 "군산조선소의 대책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에게 대못을 박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군산조선소 재가동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폐쇄를 전제로 한 충격완화책, 위로 대책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20일 국무총리가 발표할 군산조선소 대책에 기대하라는 말을 불과 이틀 전에 하셨는데 이낙연 총리가 발표한 대책에 될 기대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대선 때는 표 달라고 공약 하더니 집권하니 안면몰수, 전북도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에게 때답질 일 아니다.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조선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확대, 노후선박 조기 폐선 등을 담은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선소 재가동 대책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뉴시스

### 자유한국당, '외우성 연수' 충북도의원 3인 '제명'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최악의 물난리 상황에도 유럽 국외 연수를 강행해 논란이 된 충북도의원 3인(김학철·박봉순·박한범)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렸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회부 받은 '수해지역 충북도의회 의원 해외 연수' 관련 징계안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로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2호,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등을 들었다.

정주택 위원장은 "지역 도민이 재난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막말을 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도 부족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